

KTX 패러독스

가까워지는 광주~서울 교류 급증 속 지역자원 유출 우려 6년전 개통 대구 경우 교육·의료·유통 수도권 집중 심화

호남고속철도 서울~광주 구간 개통이 4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KTX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지역자원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이 완비될 경우 사람과 물류의 이동 제약이 사라지고 지역 간 경쟁이 극대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고속철도가 개통된 대구나 대전 등의 사례를 통해 KTX의 득과 실을 사전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11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 2012년 개발되는 최고시속 430km의 차세대 고속열차가 호남고속철도에 도입되는 등 미래 KTX 고속철도망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소요시간인 2시간52분에 비해 1시간41분을 앞당겨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문화·사회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가 급증할 것으로 예

상된다.

광주보다 10년 앞선 지난 2004년 고속철도가 개통된 대구의 경우 지난 해 말 개통 5년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 병원, 교육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의 지역자원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철도의 분기역에 해당되는 대전의 경우 학술이나 문화 분야, 부산은 쇼핑이나 관광 분야에서 다소 두각을 나타냈지만, 대부분 수도권이 대구에서 빠져나간 지역자본을 흡수한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KTX 개통이 대구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에 따르면 관광·학술행사·문화예술행사·교육·의료·유통 등 6개 분야에서 서울·대전·대구·부산·기타 등의 KTX 주요정차 도시를 대상으로 개통 후 서비스 이용 증가 비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이 최소 48.1%에서 최대 82.6%까지 대부분의 증가분을 독식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의료(82.6%), 교육(81.9%), 유통(79.6%)이 높게 나타났다. 부산은 관광에서 33.2%, 대전은 문화예술행사에서 9.1%를 가져왔을 뿐이다.

이는 KTX 이용객 215명과 KTX역인 동대구역세권 입지 102개 업체, 서울 소재 의료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KTX로 인한 지역자원 유출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를 맡은 광종무 연구위원은 "광주도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강점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을 전국적·세계적 관점에서 재분석하고 이동수요에 맞춘 역세권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강운태 광주시장도 "호남고속철도 개통은 지역 발전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의 갈림길로, 서울과 호남이 경쟁체제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2015년 이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서울에 흡입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다음달까지 광주역과 송정역의 역세권을 쇼핑, 업무, 호텔·오락 중심지로 복합 개발하고 휴게시설·관공·주차시스템을 개선해 거점관문으로 육성하는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구마 캐어요" 7일 광주시 남구 양과동 생태체험학습장에서 열린 '고구마 캐기 체험'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캔 고구마를 싱기한 듯 들어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8일과 9일에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해남·신안·보성 원전부지 검토

한수원 후보지 10곳 선정...신안군 "반대" 해남·보성군 "주민 뜻 따를 것"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오는 2012년까지 추가 원전부지 2곳의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원전 신규 후보지 용역결과 해남과 신안, 보성 등 전국 10곳이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안군은 반대 입장을, 해남군과 보성군은 "주민 의견에 따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 의원은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한 국전력기술국토연구원에 신규 원전 입지확보 정책수립 종합용역을 의뢰

한 결과, 해남과 신안, 보성, 강진 고령과 삼척, 경북 영덕 등 전국 10곳이 원전부지 후보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신 고리 6호기, 신 울진 4호기, 신 월성 2호기 등 총 12기의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12년까지 추가 원전부지 2곳의 선정 작업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유치신청을 마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수원은 지난 7

월부터 후보지 단체장들을 비공식으로 접촉하고 있고 일부 접촉한 단체장들 가운데는 유치에 매우 긍정적인 단체장도 있었다고 한다"며 "그러나 부지확보 방식을 최종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지 지자체와 비공식 접촉을 하는 것이 방식상 폐기물처리장 유치 때 촉발됐던 부안사태를 재발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철환 해남군수는 "한수원 등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나 접촉 사실은 없지만, 지역 일부 단체가 원전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정부

때도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군민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일부 군의원도 유력 인사들은 원전 유치를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중해 보성군수는 "30여 년 전 보성에 원전 건설이 추진되다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를 아쉬워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지역발전은 위해서도 원전은 긍정적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여론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의 경우 지역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유치추진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우량 신안군수는 "철의한 사실도 없고, 원전부지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군수는 "최근 한전 자회사에서 임자도에 수천억원의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을 제의해 왔지만 거절했다"며 "임자 근해에서 연간 7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만큼 천혜의 어장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들어서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 = 조완남·박희석기자 dia@ /동부취재본부 = 선상근기자 sun@

광주 새 야구장 국비 300억 확보

유인촌 장관 "스포츠토토 기금으로 지원" 약속

강운태 광주시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냄에 따라 지역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개방형 야구장 건립에 탄력이 불을 전방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진주에서 개막한 '제91회 전국체육대

회' 개막식에서 강 시장과 유 장관이 국비인 스포츠포토 기금을 야구장 건립비로 지원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문광부는 '광주 야구장은 신축되는 것이어서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밝혀 왔으나, 강 시장이 '기존 야구장 부지에 건립하는 경우 증·개축에 해당되는 만큼, 동일한 부지에 지어지는 광주 야구장은 증·개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결국 유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국비지원이 구체화됐다.

1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야구장 건립 사업비 가운데 3분의 1은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한국야구위원회(KBO) 및 기타 구단과 광주시가 각각 3분의 1씩 분담하기로 했으며, 유 장관은 스포츠포토 기금의 5%를 지방체육시설의 개·보수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만큼 이르면 올해 말부터 광주 야구장 건립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정부에서 스포츠포토 수익금이 배정되는 대로 야구장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지난 6월 당선자 시절부터 유 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요청해 왔으나, 중앙 정부를 상대로 야구장 건립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재원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한편, 무등야구장은 지난 1965년 9월 건립된 이후 45년간 광주 야구의 산실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이 낡아 선수와 관람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야구장 건립 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시민공청회와 TV 토론회 등을 거쳐 2만 5000석 안팎의 개방형 야구장 건립 계획을 추진해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장바구니 물가 쇼크

상추·호박 등 9개 품목 2년새 두배 이상 폭등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가 2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급등했다.

특히 지난 9월 생활물가 품목 가운데 작년 같은 달에 비해 두 배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만 9개에 달했다.

7월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생활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4.1%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던 2008년 10월의 4.8% 이

후 최고를 기록했다.

생활물가는 정부가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52개 품목을 선정해 작성한 것이다.

이처럼 9월에 생활물가가 폭등한 이유는 폭우 등 이상 기후가 지속되면서 농수산물의 작황이 좋지 못해 신선식품의 공급이 수요를 맞추는 데

실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월 생활물가가 152개 품목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오른 품목만 116개에 달하며 17개 품목은 변동이 없었고 19개 품목만 가격이 내렸다. 전체 생활물가 품목 중 76%의 가격이 오른 셈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100% 이상 폭등한 품목은 상추(233.6%), 호박(219.9%), 무(165.6%), 시금치(151.4%), 오이(133.7%), 수박(128.0%), 배추(118.9%), 파(102.9%), 마늘(101.1%) 등으로 우리 식탁에 거의 매일 오르는 야채·과일이라는 점에서 '장바구니 물가 쇼크'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었다.

/연합뉴스

보문고 신입생모집
10월20일~25일 원서접수

- 대한민국 최고의 전성기를 모십니다.
- 전국 최상위 특목고입니다.
- 전교생 수능 최첨단 정복기숙사 신축
- 보다 폭넓은 장학금 제도
- 2009 교육부 선정 영어리더 학교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
보문고등학교
입학문의 (062) 940-8800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HAPPINESS COUNTRY CLUB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VIP 1차정회원
분양예정
(3억5,000만원)

해피 정회원 모집

- 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 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 모집인원: 100명 ■ 분양금액: 1억
- 정회원 특징
 1. 공통: 정회원 그린피 면제 /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2. 선택: A형, B형 중 택일
 - A형: 지정회원(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인 중회원대우,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할인혜택 (10% 전후)
 - B형: 지정회원 미선택시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우대혜택 (20% 전후)
- 입회금 납부안내
 1. 계약금 20% 납입 후 30일 이내 잔금납부 (단위: 만원)

구분	입회금액	납입 방법	
		계약금	잔금
해피정회원	10,000	2,000	8,000
- 2. 납입계좌
- 광주은행 001-127-012066 / 예금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가능)

가입문의 Tel. 061-330-5001~5 Fax. 061-330-5009